

4. 마을의 특징

1) 돌재(石嶺)

울진읍 북면 죽변면의 경계 지점에 있는 재(嶺)로 옛날 울진 해안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12령 고갯길 중 첫 번째 재(嶺)다.

2) 월랑천(月廊川)

어느 부자가 행랑 앞을 흐르는 개울이 맑고 깨끗하여 월랑천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 월랑천은 범상과 감대에서 각각 발원하여 합류되어 울진 남대천으로 유입된다.

제7절 화성3리(花城三里)[속명: 매눈, 용장(龍場)]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후정4리와 인접하고, 3km 거리에 죽변면 소재지가 있다. 남쪽은 화성4리 성내가 있고 앞산인 나비산이 있으며, 서쪽은 마을 뒷산인 솔치봉과 소백산이 있고, 북쪽은 북면 고목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됐다.

2. 마을의 역사

1510년경에 해주 최씨(海州崔氏) 유길(有吉)이라는 사람이 개척하여 정착하였다고 전하며, 그 후 1519년경에 남평(南平), 문습(文習)이라는 사람이 입주하여 살아왔다.

1) 매눈(鷹眼)

1600년경부터 울진과 부구를 잇는 남북과 동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은 마을로서 주막도 있고 상인들이 드나들어 경기가 좋았던 곳이었다. 산모퉁이에 매눈을 닮은 바위가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을 매눈이라 하였는데, 가끔 살인사건이 발생함으로 이 바위를 없애 버렸다고 전해오고 있다.

2) 용장(龍場)

마을 뒷산인 소백산과 마을 앞의 나비산이 연못에 비쳐 용(龍)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용장이라 하였다. 용장에는 구석마, 양지마, 아랫마 등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57세대가 거주하며 남평 문씨(南平文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등이 주성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강면사(江棉祠)

강면사는 삼우당(三憂堂) 문익점(文益漸)[1329~1398]을 모시는 영정각(影幀閣)으로 남평 문씨 문중의 의례 공간이다. 1943년 옥계서원이 북면 고목리로 이건하고, 삼우당 추모비각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유허비를 세우고 향사를 지내다가, 1997년 9월에 사우를 창건하고 삼우당의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문익점은 목면보급으로 획기적인 의생활 변화에 기여했으며, 1440년(세종 22)에 영의정과 부민후(富民侯)를 추증했고, 충선공(忠宣公)의 시호를 받았다. 산청의 도천서원, 나주의 장연서원, 장흥의 강성서원에 배향돼 있다.

제8절 화성4리(花城四里)[속명 : 성내(城內)]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후정4리와 남쪽은 꽃방과 이웃하고, 서쪽은 범상과 인접하였으며, 북쪽은 용장이다. 마을회관은 1997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918년 고려 태조 등극 후 성내 지역에 토성을 쌓고 성주(城主)가 있던 도읍지였으나, 을진읍 읍내리로 이읍했다. 이후 이 산성은 폐허가 되고 한촌(閑村)이 되었다.